

# 아이와 아이

## 등장인물

송아름

김채이

규리

김단하

병원 원장

간호사

## 장소

병원 진료소

김다은

## 1장

**조명이 켜진 뒤, 송아름과 병원 원장 사이에 테이블이 놓여 있다.**

송아름: (조급해하며) 그러니까.. 그게... 그게 어떻게 된 일이나면요.

병원 원장: 마음 편히 이야기해도 괜찮아요. 같이 심호흡해볼까요? 들이쉬고~ 내쉬고. 들이쉬고~ 내쉬고.

**병원 원장의 목소리에 맞춰서 송아름은 심호흡을 따라 한다.**

병원 원장: 여기 물 한 잔 드시고, 조금 진정되면 천천히 말하셔도 돼요.

송아름: 네, 감사합니다. (물을 마신다)

### 정적

병원 원장: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요?

송아름: 네, 조금 진정된 것 같아요.

병원 원장: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

송아름: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.

병원 원장: 인터넷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네요.

송아름: 너무 불안한 마음에 많이 찾아봤거든요. 찾다가 찾다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오게 되었어요. (한숨 쉬며 고민하다)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. 여기에 온 이 유도 이것 때문이에요.

병원 원장: 혼자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겠어요. 힘드셨죠?

송아름: 아기를 가진 것도 마음이 어려웠지만, 그것보다 남자친구 반응 때문에 더 심란했어요.

병원 원장: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?

송아름: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임신중절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,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?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걸 쉽게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.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네가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! 이렇게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쉽게 생명을 없애버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, 또 제 인생을 생각해보면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고...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
병원 원장: 지금 남자친구는 어디 있어요?

송아름: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, 연락도 안 받고, 학교도 안 나와요. 무서워서 잠수 탕나 봐요. 개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? 어후, 생각할수록 어이없네? 너무 분해!

병원 원장: 혹시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?

송아름: (한숨 쉬며)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관심이라곤 하나도 없어요. 그 흔히 말하는 일중독에 걸렸달까요? 엄마 아빠 전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세요. 저희 부모님은 사랑은 돈으로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. 제가 고민거리를 용기 내서 이야기해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. 힘든 일 있어서 징징거리면 용돈 주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래요. (헛웃음) 전 그냥 엄마 아빠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바란 건데... 제 친구들은 이런 저의 부모님이 부럽대요. 다른 친구들은 복에 겨웠죠.. 사랑만 많이 받고 자라서 저의 마음은 하나도 몰라요. 아마도 공감조차 못해줄 거예요.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. 저희 부모님은 제 삶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으면서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.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왜그리 강조하시는지.. 안 가면 절대 안 된대요.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못 말하겠어요. 사실대로 말이라도 하면 전 내일이 없을지도 몰라요.

병원 원장: 어린 나이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. 아름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

송아름: 저도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할지... 마음 같아서 는 확 수술해 버리고,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한 인생 살고 싶은데, 생명을 지운다는 게 마음에 참 걸리네요. 작은 생명이라고 해도 움직이기도 하고 살아도 있잖아요. (흥분하며) 심지어 제 뱃속에 절 닮은 아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지우죠? 원장님 저 정말 어떻게 할까요..?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. 제발요..

병원 원장: 아름양 잠시 진정하고요. (마트료시카를 꺼낸다) 이게... 그...

송아름: 이게 뭐예요..? 이거 그 마티...그 마테시카? 그거 아니에요?

병원 원장: 맞아요. 마트료시카. 이 마트료시카는 조금 남다른 마트료시카예요.

송아름: 뭐가 다르죠? 다른 마트료시카랑 똑같이 생겼는데...

병원 원장: 이건 사실 (귓속말하며) 미래를 볼 수 있는 마트료시카거든요.

송아름: (놀라며) 네? 그게 말이 돼요?

병원 원장: 제가 이걸 구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겨우 찾은 귀중한 거예요. 한 마디로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레어템이죠.

송아름: 정말요? 그 레어템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?

병원 원장: 이 마트료시카는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만 보여주고 있어요. 크기가 다른 마트료시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아름양이 미래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. 아름양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 랜덤으로 보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,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작은 이 마트료시카가 현재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.

송아름: 네! 저 지금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?

병원 원장: 잠시만요! 주의사항을 먼저 숙지하셔야 합니다.

송아름: 아 네! 네.

병원 원장: (종이를 건네며) 이걸 읽어보시죠.

송아름: (종이를 보며) 마트료시카 주의사항. 하나. 마트료시카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. 잃어버릴 경우 현재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. 둘. 마트료시카를 선택해 걸린 미래의 상황은 랜덤이다. 마트료시카를 선택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. 셋. 마트료시카로 미래를 갈 수 있는 기회는 3번 뿐이며, 마트료시카 인형 하나에 하루에 시간이 주어진다.

병원 원장: 주의사항을 다 읽으시고 동의하시면 여기  
(중이)에 싸인 부탁드립니다.

송아름: 저 잘할 수 있겠죠..? (중이에 싸인을 한다)

병원 원장: 아름양, 응원할게요.

송아름: 그나저나 원장님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되  
셨어요?

병원 원장: 아. 저도 예전에 아름양과 비슷한 경험이  
있었어요. 그 복잡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 
없던 그 상황이 너무 괴롭더라고요. 그래서 그  
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다른 병원과는 다  
르게 특별한 병원을 만들게 되었어요. 아직은  
제 스스로 병원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색하네  
요. 그냥 상담센터 겸 병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 
될 것 같아요.

송아름: 아, 원장님도 예전에 그러셨구나. 그러면 그때  
그 아이 지금 키우고 계시나요?

병원 원장: 아니요, 너무 두려운 마음에 바로 임신중절  
수술을 선택했어요. 그때 그 일을 저질렀던 남  
자친구가 지금 제 남편이고, 지금은 애 하나 낳  
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. 근데 그 지운 아이에 대  
해 후회가 계속 남더라고요. 제 딸에게 언니나  
오빠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...하는 이런 후회  
랄까요? 어리고 두려운 마음에 그 작은 생명을  
지워버린 것도 마음에 걸리고, 제 아이를 보면

그때 그 아이가 문득 생각나요. 그래서 여기에 온 분들만큼은 후회 안 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어요. 아름양도 미래를 보고 오시면 아름양의 결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!

송아름: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원장님

### **원장실에서 원장님이 나간다.**

송아름: 그래, 어떤 미래가 나오든 지금보단 상황이 괜찮을 거야.

### **송아름은 마트로시카 하나를 선택한다.**

## **2장**

미래로 온 송아름은 어리둥절하다.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한다.

송아름: 여보세요?

김채이: 아름아~ 오랜만에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! 잘 살고 있어?

송아름: 누.. 누구세요?

김채이: 내 전화번호 저장도 안 했어? 뭐야~ 20년지

기 친구 맞아? 다시 봤다 송아름?

송아름: 20년지기..? 혹시 지금 몇살이지?

김채이: 우리 29살이잖아~ (당황한 듯) 아름이 아니야? 아름이 목소리는 맞는데...?

송아름: 우리가 29살이라고? 벌써?

김채이: 그래! 오늘 처음 안 사람처럼 왜 그래? 세월 빠르다니까? 그나저나 아직도 나 모르겠어? 나 채이잖아! 너 단짝친구! 김채이

송아름: (잠시 정적하다가) 아! 김채이? 아~ 너가 김채이구나?

김채이: 뭐야? 이제 안 거야? 내 전화번호 저장 안 했어? 몇 년 못 봤다고 이렇게 나를 잊은 거야?

송아름: 아..아니지! 최근에 핸드폰을 바꿔서 그래. 잘 지내지?

김채이: 나야 잘 지내고 있지, 너는?

송아름: 나도 잘 지내고 있어. 요즘 뭐하고 지내?

김채이: 말해 뭐해, 애 보느라 바쁘지.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다. 야.

송아름: 뭐야? 너 애 있었어?

김채이: 뭐야? 새삼스럽게 왜 그래?

송아름: 네가 언제부터 애를 키웠다고.. 지금 몇살이지?

김채이: 5살이지. 너 규리 종종 봤었잖아! 기억 안 나?

송아름: 아.. 아니! 기억나지! 규..규리! 잘 크고 있지?

김채이: 그럼!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니까 서운한 거 있지? 이젠 천천히 컸으면 좋겠어. 뭐가 급

하다고 빨리 크는지..참...

송아름: 이제 5살이면 지금이 딱 귀여울 나이네!

김채이: 귀여운 것도 귀여운 건데 애가 누굴 닮았는지  
고집도 진짜 세..

송아름: 너 닮았나 봐. 너 고집 세기로 진짜 유명했잖아.

김채이: 그런가?

송아름: 그나저나 너 내일 나랑 만날 수 있어?

김채이: 갑자기? 난 규리 봐야지.

송아름: 뭐? 내일도 애를 본다고?

김채이: 그럼~ 맨날 봐야지. 더군다나 내일 주말인데... 애가 혼자 무슨일을 할 수 있겠냐. 엄마의 삶이 이런거지, 애 하나 키우는데 시간 정신없이 흘러가.. 넌 모르지? 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마음껏 즐겨.

송아름: 즐기긴 무슨... 내일 내 생일이니까 바람도 쉴 겸 만나자. 오랜만에 규리도 보고싶네.

김채이: 아 맞다! 내일 너 생일이지? 매년 기억했는데 이젠 나도 아줌마 다 됐네...

송아름: 그러니까.. 이제 옛날의 김채이가 아니야. 내일 내가 너희집 쪽으로 갈게.

김채이: 그래~ 고맙다~ (끊으려다가 다시 말을 이어간다) 아니. 근데 잠시만. 내일 규리도 데려오라고?

송아름 : 응, 왜?

김채이: 규리도?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?

송아름: 응, 규리도 너랑 같이 오라니까? 셋이서 만나  
자고! 나 오랜만에 규리 보고싶어.

김채이: 내가 알던 송아름이 아니야. 너 원래 애 진짜  
싫어하잖아. 애 이야기만 나와도 질색팔색하던  
애가...

송아름: 에이, 그정도는 아니었다. 나 아이들 나름 좋  
아했어~ 내일보자!

### 전화를 끊은 뒤, 송아름은 허무하다.

송아름: (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) 20년 친구라고 나  
에 대해서 아는 건 무지 많아... 다들 잘 살고 있  
는 것 같네. 나도 잘 살고 있는 게 맞나...?

### 다음 날이 되어 송아름은 김채이 집 앞에 왔다.

송아름: 여보세요? 나 지금 너네집 앞에서 기다리고  
있어.

김채이: 어.. 미안! 미안! 지금 내려갈게!

송아름: (전화를 끊은 뒤) 바쁘네.. (걸어오는 김채이  
를 보며 반가운 마음으로) 채이야!

김채이: 아름아 오랜만이야! 규리야 이모한테 인사해  
야지.

규리: 이모, 안녕하세요.

송아름: 어머, 벌써 이렇게나 컸어? 내 기억엔 규리는  
엄마 품에서 꿈쩍도 안 했었는데

규리: 저 진짜 많이 컸어요! 언니 되려고 밥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! 이제 콩도 먹을 수 있어요!

송아름: 우와 규리 이제 언니 다 됐네?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! 뭐 먹고 싶어?

규리: 음.. 아이스크림이요!

송아름 : 그래, 그럼 이모가 밥 먹고 아이스크림 사줄게!

김채이: 우와, 우리 규리 좋겠네? 그럴 땐 이모한테?

규리: 감사합니다!

김채이: 아름아 내가 예약해둔 곳 있거든?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가자!

송아름: 그래!

### **송아름과 규리는 김채이가 예약한 식당으로 간다.**

규리: 우와! 예쁘다!

송아름: 우와 진짜 예쁘다. 규리야 그렇지?

김채이: (뿌듯해하며) 진짜 예쁘지? 여기 앉자.

**송아름과 김채이, 규리 모두 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린다. 송아름은 김채이와 마주보고 있다, 송아름의 대각선에는 규리가 자리 잡았다. 기다리는 동안 물티슈로 송아름과 규리는 손 닦을 준비를 한다.**

송아름: 규리야! 이모랑 같이 손 닦자!

규리: 네, 좋아요!

송아름: 한 손으로 물티슈를 잡고 손가락 하나 하나 깨끗하게 닦아 볼까? 이모 따라해 봐!

규리: (송아름을 따라한다) 이모! 이모랑 이렇게 닦으니까 재밌어요!

김채이: 뭐야? 무슨일이야. 엄마랑 있을 때는 손 닦기 그렇게 싫어하더니?

규리: (밝게 웃으며) 이모랑 닦으니까 너무 재밌어! 나 손 또 닦고 싶은데.. 엄마, 나 한 번만 더 닦으면 안 돼? 제발~

김채이: 송아름 너 뭐야? 다시 봤다? 왜이렇게 네가 애 엄마인 마냥 육아를 잘해?

송아름: 뭘, 새삼스럽게, 난 뭐든지 잘하는 거 알잖아. 내가 못하는 거 본 적이라도 있어?

김채이: 아무리 그래도 육아까지 잘할 줄은 몰랐지.. 나 몰래 애를 가져본 적이라도 있냐?

송아름: 뭐, 애를 가져보긴 했지. 아 아니 가졌다고는 할 수 없냐?

김채이: 뭐?

송아름: 아, 아니. 후.. 후원 그 다른 애 후원했다고. (태연스럽게) 나 지금 이삭 엄마야~ 지금은 탄자니아에 살고 있지만... 넌 누구 후원하는 애 없냐?

김채이: 후원이고 뭐고, 규리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.

규리: 이모! 손 닦아주셔서 고맙습니다.

송아름: 그래~ 이제 규리한테 세균이 절대 못 들어가겠네? 이제 맛있게 밥 먹자!

### **김채이와 송아름, 규리는 음식을 먹는다.**

송아름: 규리야 엄마 좋아?

규리: 네!

송아름: 얼마나 좋아?

규리: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좋아요!

송아름: 진짜? 엄마가 제일 좋아?

규리: 네 전 엄마가 제일 좋아요!

송아름: 엄마가 좋아? 아빠가 좋아?

규리: 음.. 아빠한테 비밀인데.. 엄마요!

김채이: (어이없지만 귀여워하며) 애가 잔머리는 또 얼마나 잘 굴리는지 아빠 앞에서는 아빠가 더 좋다고 하고, 엄마 앞에서는 엄마가 더 좋다고 해.

송아름: (웃으며) 잔머리 굴리는 것까지 널 다했네.

김채이: 그치, 하는 행동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. 너무 나 같아가지고..

송아름: (김채이를 보며) 규리 진짜 예쁘다. 넌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?

김채이: 당연하지~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.  
규리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막  
그런다?

송아름: 진짜? 너 규리 낳기 전까지만 해도 인생에서  
네가 제일 중요했잖아!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  
고..

김채이: 그러니까, 나도 엄청 신기해. 모성애가 이렇게  
강할 줄이야 나도 몰랐지..

송아름: 엄마라는 이름이 진짜 대단한 이름인가 봐.

김채이: 그나저나,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? 잘 지내지?  
요즘 너 취업도 잘했고, 일이 술술 풀린다고 얘  
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?

송아름: 부러움은 무슨...

김채이: 그래 너 정도면 성공한거지.. 대학도 잘 가고  
대기업에 취업도 하고.. 역시 될 놈들은 된다니  
까?

송아름: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면 행복만 할 줄  
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? 난 지금 네가  
부러워

김채이: 뭐? 내가 부럽다고? 왜?

송아름: 너 닳은 애기랑 이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삶  
이 웬지 모르게 행복해 보여.

김채이: 아직 네가 뭘 모른다 야. 내가 말했지! 지금 더  
즐거. 더 즐기고 행복한 삶이 질릴 때, 그때 결  
혼해!

송아름: 널 보면서 느낀 건데, 한 사람을 책임지고 돌

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행복한 일인 것 같아. 애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, 웃기도 하고.. 넌 진짜 규리보면 살 맛 날 것 같다. 김채이: 애가 갑자기 왜그래? 야 괜찮냐?

송아름: (한숨쉬며) 지금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어. 열심히 살아도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한 느낌 알아..? 나도 너처럼 의미 있는 삶 살고 싶다.

김채이: 너 닮은 애 있으면 진짜 예쁘고 푹푹하긴 하겠다 야.

송아름: 그치? 나도 애가 있었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팠겠지?

### **규리가 졸려한다.**

김채이: 이제 규리 낮잠 시간이다. 규리 짜증내기 전에 빨리 가볼게. 오늘 재밌었어! 생일 축하하고, 다음엔 제대로 놀자~

송아름: 그래! 오늘 고마웠어, 조심해서 잘 가!

**김채이와 규리는 퇴장하고 송아름만 혼자 무대에 남는다. 송아름 앞에는 마트로시카가 놓아져 있고, 송아름은 고민하다가 마트로시카 하나를 선택한다.**

### 3장

**송아름은 미래로 왔다. 미래로 오자마자 송아름에게 전화가 온다. 송아름은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한다.**

송아름: 왜 또 전화야. 운설화? 이 사람이 누구지?

송아름: (전화를 받으며) 여보세요? 네? 누구라고요? 팀장님이요? 아~ 근데 죄송한데 혹시 무슨 팀장님이시죠..? 제가 다니는 회사요?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요? 혹시 어제도 제가 회사를 나갔나요? 아~ 어제 빨간날이었구나~. 그나저나 왜 전화하셨어요? 아 보육원 봉사요? 내일이요? 혹시 어디 보육원이예요? 꿈빛보육원? 아 팀장님이 시간이 안 되시는구나.. 저도 그리 한가한 사람은 아닌데.. 하루만 가면 된다고요? 네? 7시 30분에 강서역 앞이요? 일단 알겠습니다. 좋은밤 보내세요!

송아름: (핸드폰을 쳐다보며) 꿈빛보육원? 아, 여기가 미래인가 보다. 어떤 미래지? 내가 꿈빛보육원 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? 혹시 그 곳에 내 아이가 있는 건가?

**다음날 송아름은 회사 동료들과 보육원에 도착했다. 보육원에는 많은 아이들이 보였고, 그들은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다. 송아름은 많은 아이들 중 김단하가**

**자신의 딸임을 단번에 알아챈다.**

송아름: 아, 저 아이가 내 아이구나. 내 어렸을 적 모습  
이랑 똑같이 생겼네..

**송아름은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 있는 김단하에게  
다가가 말을 건넨다.**

송아름: 안녕..?

김단하: (어색해하며) 안녕하세요.

송아름: 이름이 뭐야?

김단하: 김단하예요.

송아름: 혹시 12살이니?

김단하: (조금 놀라며) 네. 어떻게 아셨어요?

송아름: 아줌마가 축이 좀 좋아! ㅎㅎ 여기에 몇살 때  
부터 있었어?

김단하: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.

송아름: 태어났을 때부터?

김단하: 아마도 그럴 거예요.

송아름: 단하는 아주 예쁘고 귀엽게 생겼네... 어렸을  
때부터 사랑 아주 많이 받았겠다.

김단하: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많이 사  
랑했대요.

송아름: 그렇지.. 정말 많이 사랑했지..

김단하: 네?

송아름: 아 아니야!

김단하: 그래서 여기 보낼 때도 엄청 울었다던데...

송아름: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보냈으니.. 엄마가 엄청 슬펐나보다.. 그러면 단하는 엄마 보고싶지 않아?

김단하: 모르겠어요.

송아름: 모르겠다는 건 무슨 의미야?

김단하: 엄마가 곁에 있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. 얼굴도 모르기도 하고... 전 엄마의 따뜻한 품을 말로만 들었지, 직접 느껴본 적은 없어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.

송아름: 단하는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?

김단하: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..? 엄마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잖아요.

송아름: ...그렇지? 엄마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지.. (어색해하다가 음료수를 건네며) 이거 먹어.

김단하: 괜찮아요!

송아름: 왜? 아줌마가 단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인데? (정적) 그래도 안 받을 거야?

김단하: (송아름의 눈치를 보며) 감..감사합니다. (혼잣말로) 이 음료수 제일 좋아하는 건데!

송아름: 정말? 나도 이 음료수를 제일 좋아하는데!

김단하: (송아름을 힐끗 쳐다보고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)

**김단하는 혼자 음료수 뚜껑 여는 것을 힘겨워 한다.**

송아름: 음료수 줘볼래? 열어줄게

김단하: (즉시 반응하며) 아뇨! 괜찮아요. 제가 할게요. (혼자 뚜껑을 따려고 하지만 힘겨워한다)

송아름: 아줌마가 해줄게!

김단하: 아 괜찮아요. (계속 뚜껑을 따다)

송아름: (지켜보다) 아줌마가 해주면 안 돼?

김단하: 제가 할 수 있어요. (계속 힘겨워한다)

송아름: (지켜보다가 간절하게) 아줌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. 아줌마가 해줄게, 줘 봐!

김단하: 아니에요. 제가 할래요. 저 정말 할 수 있어요.

송아름: (감정을 억누르며) 단하야! 혼자 못하겠으면 어른들에게 부탁해. 너 아직 어리잖아. 그래서 단하 주변에 어른들이 있는 거야. 단하가 혼자 못하겠으면 도와주세요!라고 외치면 어른들이 단하를 도와줄 수 있어. 그리고 지금 단하 나이엔 어리광 부리고 떼서도 충분히 괜찮아. 그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야!

김단하: 아줌마가 지금 도와준다고 해도, 아줌마 가면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제 주변엔 어리광 받아줄 사람도 없고요. 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. 모든 것을 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더 좋은 어른이 되는 거래요. (깡깡 대다가 결국 뚜껑을 연다) 봐요, 저 할 수 있죠? (한 입 마신다)

**송아름은 김단하를 안쓰럽게 쳐다본다.**

송아름: 맛있지?

김단하: (끄덕끄덕)

송아름: 이 보육원에서 단하가 제일 언니야?

김단하: 저희 반에서 제일 언니예요.

송아름: 동생들 돌보는 거 안 힘들어?

김단하: 네.

송아름: 동생들이 단하 말을 잘 듣나보네?

김단하: ...네

송아름: 왜? 말 잘 안 들어?

김단하: 요즘따라 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.

송아름: 단하가 많이 힘들겠네.. 아줌마가 동생들 혼내  
줘야겠다!

김단하: 아 안 돼요! 동생들도 슬퍼서 그런 거예요.

송아름: 동생들이 슬프대? 왜?

김단하: 어린테도 엄마, 아빠가 안 돌봐주잖아요. 선생님  
님들도 바쁘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많이 돌봐주  
고 있는데 전 아직 어려서 많이 부족한가 봐요..

송아름: 단하도 슬프지..?

김단하: 전 안 슬퍼요. 전 엄마 아빠, 선생님이 없어도  
저 혼자 다할 수 있거든요! 근데 동생들은 혼자  
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슬픈 거예요.

송아름: 그러면 단하도 어렸을 땐 슬렸어?

김단하: 네..? 그때는 조금? 아주 조금 슬렸는데... 아

아니다! 안 슬펐어요!

송아름: 어렸을 때 누가 많이 도와줬어?

김단하: 아니요, 선생님들은 절 보면 항상 스스로 다  
잘한다고 칭찬해주셨어요. 그래서 전 항상 저  
혼자했어요!

송아름: 도움 받고 싶지 않았어?

김단하: 네.

송아름: 왜?

김단하: 제 옆에 있는 어른은 선생님들 뿐인데, 선생님을  
힘들게하고 싶지 않았어요. 선생님은 저말고  
도 돌봐야 할 친구들이 많거든요..

송아름: 선생님들이 힘드시대?

김단하: 제가 보기엔 선생님들은 항상 힘들어 보이세요.  
선생님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전  
슬프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들을 안 힘들게 하려  
면 스스로 잘해야 돼요.

송아름: 단하도 아직 많이 어린데..

김단하: 아니에요! 저 안 어려워. 전 스스로 다 잘할 수  
있어요!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는 두달도 안 돼  
서 목을 가눴대요. 그리고 어렸을 때도 거의 울  
지도 않았했어요. 선생님들이 저는 키우기 쉬웠  
다고 그랬어요!

송아름: 선생님들이 단하를 도와줬으면 좋겠지 않아?

김단하: 괜찮아요. 전 지금이 좋아요.

송아름: 지금이 좋다고?

김단하: 네.

송아름: 여기가 좋아?

김단하: 네, 저는 여기가 좋아요. 동생들도 있고, 선생님들도 있으니까.. 좋아요!

송아름: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항상 행복한 거야?

김단하: 음.. 항상 행복하진 않아요.

송아름: 왜? 여기가 제일 좋다며..

김단하: 좋긴한데.. 밤마다 웬지 모르게 눈물이 나거든요. 밤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요.

송아름: (놀라며) 왜? 속상해서?

김단하: 모르겠어요.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.

송아름: 선생님들은 단하가 우는 거 몰라?

김단하: 선생님들은 모를 거예요. 제가 선생님들 몰래 울거든요. 이불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..

송아름: 단하야! 선생님한테 말해, 속상하다고! 나 지금 슬프다고, 지금 나 좀 돌봐달라고 선생님께 말씀 드려!

김단하: 아! 절대 안 돼요. 선생님을 걱정시킬 수는 없어요! 그래서 요즘 눈물 꼭꼭 참으려고 하고 있어요. 울어도 될 건 없다는 건 저도 이제 다 알거든요. 그냥 제 마음만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.

송아름: 마음 더 강해질 필요 없어 단하야, 선생님께 슬프면 슬프다고, 속상하면 속상하다고, 눈물나면 눈물난다고 말해. 너는 그래도 되는 아이야. 너 스스로를 속일 필요도 없고, 스스로 클 필요

도 없어.

김단하: 아니에요. 저는 스스로 커서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. 나중에 엄마가 절 보면 기뻐할 수 있게.. 엄마가 어딴지는 모르지만... 언젠가 엄마한테 잘 컸다고 꼭 칭찬 받고 싶어요.

동생들이 김단하를 부른다.

김단하: 아줌마, 저 이제 가볼게요. (자리를 떠난다)

송아름: 별..벌써?

김단하: 동생들이 불러요. 제가 필요한가 봐요!

송아름: 어..? 그..그래.. 다음에 또 보자!

### **송아름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다.**

송아름: 저렇게 예쁜 아이를...내가 저렇게 예쁜 아이를 여기에 두고 갔다니.. (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보며) 혼자 크려는 모습이 어렸을 때 나랑 똑 같네.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단하를 키웠다면 어땠을까? 지금 내가 본 단하와 많이 달랐을까? 아마도 내가 키웠다면 단하가 이렇게 혼자 살아가려는 모습은 없었겠지? 항상 사랑 받으면서 자랐겠지? 지금이라도 내가 키울까? 아니야. 이제와서 미안해서 어떻게 데려가. 단하가 나한테 오지도 않겠지?

### **송아름 앞에 마트로시카가 나타난다. 송아름은 마트로시카 하나를 선택한다.**

## 4장

### 송아름은 어색한 듯 주위를 둘러본다.

김단하: (방에서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온다)

송아름: (탁자에 앉아 놀란 눈으로 김단하를 쳐다본다)

김단하: (송아름을 보며) 나 간다.

송아름: 누..누구지?

김단하: 어?

송아름: 너 누구데 여기있어?

김단하: (어이없어하며) 어? 내가 누구냐고? (헛웃음)  
엄마 뭐야? 왜 그래?

송아름: 엄마? (지금 생각난 듯) 아~ 단하구나! 어딜  
가려고 그래?

김단하: 몇번이나 말해. 나 독립한다고 했잖아!

송아름: 독립..?

김단하: 어. 나 독립할 거니까 찾지 마. 나 갈게.

송아름: (조급해하며) 아니, 아니 잠깐만. 아주 잠시만  
앉아봐.

김단하: (단칼에 거절하며) 시간 없어.

송아름: 엄마랑 조금만 이야기하자. 너 독립한다며. 엄  
마랑 마지막 날이잖아. 이대로 갈 거야?

김단하: (마지못해 자리에 앉는다)

**김단하가 앉은 뒤, 잠시동안 정적이 흐른다. 송아름은 김단하의 눈치를 본다.**

송아름: 진짜 갈 거야?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싫어?

김단하: 그런 거 아니야.

송아름: 그럼 왜 가려고 하는 거야..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 엄마랑 살아야지... 이제 너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도 못 산다?

## 정적

김단하: 엄마. 왜 계속 나랑 살고싶은 거야? 엄마는 지치지도 않아?

송아름: (놀라며) 지친다고? 그게 무슨 말이야? 엄마가 지친 모습이라도 본 적 있어?

김단하: (감정을 억누르며) 엄마. 이제 엄마도, 나도 어린아이가 아니야. 나 이제 곧 스무살이잖아. 나도 이제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살아보고 싶어. 엄마도 이젠 나 신경쓰지 말고 엄마 인생 살면 안 돼? 하고 싶은 일 실컷하면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 다 해보면서 살아. 그러다보면 우리는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잖아..

송아름: 뭐? 엄마보고 널 신경쓰지 말라고?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. 엄마는 너가 더 좋은 옷 입으면 좋겠고,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,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, 네가 행복하게 살기

바라는 마음에... 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청춘을 포기했어.

김단하: (송아름 대사 끝나고 바로) 나도 알아. 나도 안다고. 엄마가 얼마나 희생을 하면서까지 날 키웠는지. 나도 아주 잘 알아. 그래서 그냥 살았어.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, 싫어도 좋다고 말하면서.. 그냥 엄마가 실망할까봐 지금까지 참으면서 살았어. 근데 이젠 못해. 이젠 그만할래.

송아름: 힘들게 키운 건 엄만데 왜 네가 더 힘들다고 해? 엄마가 잘해줬잖아. 정말 잘해줬잖아. 아니야?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.. 엄마가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결국 이거야..?

김단하: 엄마는 나에 대해서 몰라. 진짜 모르잖아. 내가 뭘 바라고 있었는지, 내가 어떤 마음인지. 알고 있었긴 해?

송아름: 네가 바라는 게 뭘데. 아빠? ... 아빠야? 그래서 엄마가 아빠 빈자리 못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잖아. 너도 알잖아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. 근데도 빈자리가 느껴져?

김단하: 아빠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었어. 엄만 모르지? 난 그저 엄마의 따뜻한 품을 기다렸던 거. 엄마는 뭐, 나를 잘 키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. 근데 난 좀 다르게 생각해. 엄마의 지나친 헌신과 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어.

송아름: 엄마의 관심이 싫었다고? 그 관심이 얼마나

감사한 건지 넌 모르지? 엄마는 아무에게도 도움 받지 못하고 컸어. 6살 때부터 혼자서 모든 걸 했을만큼 혼자 자랐어. 할머니 할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관심은 커녕 같이 보내는 시간조차 없었어. 그래서 너만큼은 나처럼 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키운 건데 내가 잘못된 거야?

김단하: (해탈한 듯) 엄마 잘못 아니야. 근데 나 지금 좀 지쳤어.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. 지금 엄마도 꽃다운 나이잖아. 엄마, 제발 나 좀 버려줘. 제발.

## 정적

### 5장

김단하: 엄마, 미안해.

송아름: 아니야.

김단하: 미안해, 내가 좀 심했지?

송아름: 다 엄마 잘못이야.

김단하: 아니야, 아닌 거 알잖아.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니까?

송아름: 안 가면 안 돼?

김단하: 엄마, 나 이제 진짜 가야 돼..

## 정적

송아름: 엄마가 더 잘할게. 그냥 같이만 있어줘. 엄마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.

김단하: 엄마 왜그래? 영원히 안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, 독립하겠다는데. 딸이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니까? 엄마는 딸이 독립하는 게 싫어?

송아름: 내가 독립하면 하루종일 네 생각나서 엄마는 어떻게 살아?

김단하: 엄마 해보고 싶은 거 많았잖아. 이제 그거 하나씩 하면서 살아.

송아름: 해보고 싶은 거 안 해도 돼. 너랑 행복하게 사는 거. 그거 하나면 돼.

## 정적

김단하: ... 엄마... 나 엄마 좋아해, 알지? 나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. 나도 엄마 없으면 못 살아. 근데 우리 잠시만이라도 아주 잠시만 시간을 가지자. 나 그래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행복했어. 나도 알아. 엄마가 나를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운 거. 그래서 난 엄마의 사랑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만 생각했지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. 어찌먼 아빠와 엄마가 주는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을지도 몰라. 사랑 정말 많이 받고 자라서 좋았어. 정말 좋았는데, 엄마한테 기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어.

송아름: 지금 너 나이엔 엄마한테 기대도 돼. 충분히  
그래도 돼.

김단하: 나도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 
엄마한테만 기대면서 살아? 솔직히 이렇게 사  
는 거 불안해. 너무 불안하단 말이야. 엄마랑 같  
이 살 동안 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조  
차 주어지지 않았어. 나는 엄마를 따라다니는  
기계가 아니야. 나도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연  
습할래. 제발, 엄마. 제발 나 좀 놓아줘.

## 정적

송아름: 내가 미안해, 엄마가 미안해.

김단하: 엄마, 제발 미안해하지 마. 난 더 이상 엄마가  
나한테 미안해하는 것도, 힘들어하는 것도 보기  
싫어.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고, 지금도 나  
에게 충분히 좋은 엄마야. 그리고 앞으로도 나  
에게 좋은 엄마일 거라고 확신해. 나 엄마랑 같  
이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. 이거 하나는 확실하  
게 말할 수 있어. 진짜야. 엄마도 내 마음 알지?  
언제나 엄마 응원하고 있을게. 사랑해. (캐리어  
를 끌고 나간다)

**부동 자세가 된 송아름 앞에 마트료시카가 놓인다.  
다른 마트료시카들은 다 사라지고 현재를 되돌아가는  
것 밖에 안 남았다. 송아름은 현재로 되돌아가는 걸  
선택한다.**

## 6장

송아름은 미래에 나를 만나고 온 뒤, 다시 현재로 되돌아왔다.

송아름: 오늘따라 유독 방이 더럽네. (방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한다) 오랜만이야, 이 시간.

송아름: (앞에 보이는 마트료시카를 보며) 째았지만 좋았어..

송아름: (방을 정리하다 말고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)

### 신호음 소리

송아름: 또 역시나 안 받네..

### 핸드폰을 내려 놓는 동시에 문자 소리가 난다

송아름1 : (핸드폰을 보고 딱딱하게 문자를 읽는다)  
 딸, 왜? / 엄마는 항상 한결같네..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.

### 송아름 핸드폰에서 전화가 울린다

송아름: 어? 엄마가?

**송아름은 바로 전화를 받는다.**

김채이: 송아름~ 뭐하고 있어? 너 아프다며? 괜찮냐?  
그러니까 대학가려면 몸관리 잘해야 한다고 했지? 내가 너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거 보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~ 나와! 같이 밥이라도 먹자.

송아름: 아니야, 나 지금 밥 먹을 기분 아니야.

김채이: 무슨일있어?

송아름: 어, 좀 혼자 생각할 문제가 있어서...

김채이: 혹시 남친이랑 헤어졌어?

송아름: 아마도.. 헤어졌을 거야

김채이: 뭐? 헤어졌다고도 아니고, 헤어졌을 거라고?

송아름: 중요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. 나 이만 끊을게~

**전화를 끊는다.**

송아름: (불안해하며) 아, 이걸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, 답답해! 채이한테 말해볼까?

**송아름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채이한테 전화를 건다.**

김채이: 여보세요?

송아름: 채이야..

김채이: 왜 전화했어? 까먹고 안 한 말이라도 있어?

송아름: 어..그게 내가 사실 (정적)

김채이: 왜, 무슨일인데?

송아름: 아, 아니다. 그냥 밥 다음에 같이 먹자고~

김채이: 뭘데~ 방금 다른 거 말하려고 한 것 같은데  
사실대로 말해봐.

송아름: 어?

김채이: 우리 이래봐도 거의 10년 지기 친구잖아~ 나  
못 믿어?

송아름: 아니!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! 내가 다음에 밥  
살게~ 진짜 끊는다? 안녕~

### 송아름은 전화를 끊고 고민을 한다.

송아름: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건가?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맞겠지? 내 선택이 틀리게 된다면 어떡하지? (고민하다가) 그래, 내 삶이 중요하지.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해야 한다? 이건 아니야. 아기한테 미안하긴 한데 아직 작으니까.. 어쩌면 아이한테 더 좋을 수도 있겠네. 미래에서 봤잖아. 힘들게 키웠는데 아이가 더 힘들어했던 거. 차라리 태어나서 힘들게 살게하는 것보다 일찍 없어지는 게 아기한테 좋을 수도 있겠어. 그래, 그렇게 하자.

### 송아름은 결심을 하고, 병원으로 간다.

## 7장

**송아름은 병원에 도착했다.**

간호사: 송아름님~ 진료소로 가시면 됩니다.

송아름: 네.

**송아름은 진료소에 들어간다.**

병원 원장: 오랜만이네요. 잘 다녀오셨어요?

송아름: 네, 다녀온 뒤에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.

병원 원장: 미래에서 아이를 보셨나요?

송아름: 네, 봤어요. 아주 예쁘더군요.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이였어요.

병원 원장: 그쵸, 딸이었나요?

송아름: 네.

병원 원장: 그럼 아름양 닮아서 더 예뻐졌어요. 혹시 결정은 하셨나요?

송아름: 결정을 하고 집에서 나왔는데 계속 흔들려요. 제가 미래를 가봤을 때 제 아이가 너무 예뻐거든요.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예뻐고, 제가 꼭 지켜주고 싶은 아이였어요. 수술을 선택하면 그 아이를 다시는 못 보는 거잖아요. 전 그 아이랑 있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. 힘든 일도 정말 많았는데 그만큼 보람도 아주 컸어요. 아이를

보내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는 거죠? 제 잘못으로 아이가 죽는 건데 그 예쁜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? 꼭 지켜주고 싶어요 그 아이.

병원 원장: 그럼 당장은 힘드시겠지만, 한 번 낳아서 키워보시는 게 어떨지요?

송아름: 제 삶을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. 전 제 나름대로 제 삶에 계획도 다 세웠고, 이루고 싶은 꿈도 있는데 그걸 못 이루면 어찌죠?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?

병원 원장: 고민이 많으시겠어요.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힘드시겠지만 결정하시면 아름양 의견에 따르겠습니다.

## 정적

병원 원장: 결정하셨나요?

송아름: 네.

병원 원장: (마트료시카를 꺼내며)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경우 왼쪽에 있는 마트료시카,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오른쪽에 있는 마트료시카를 들어주시면 돼요.

송아름: 지금 선택하면 되나요?

병원 원장: 네. 지금 바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.

**송아름의 손이 책상 위로 올라감과 동시에 암전된다.**

## 정적

간호사: 송아름씨~

**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암전되며 연극이 끝난다.**